

부처님의 지구 사랑



진재성 ⑥

땅

거시적인 땅의 세계의 일대 장관을 이루는 완벽한 생태조화는 자연의 숲속에서 발견된다.

숲은 옛 부터 많은 동식물의 생활 공간이었고 지금도 모든 동식물이 모여사는 곳이다. 난초에서부터 거대한 낙엽수나 침엽수에 이르기까지, 또한 개미에서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이러한 자연의 숲은 생물 다양성의 조화로 인해 해충으로부터의 피해가 적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천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천적에 대한 식량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람이나 눈보라의 악천후에 의해 피해가 극히 적다. 혼잡림에서 자연의 풀이 짙어 새로운 나무가 늙은 나무의 썩어에서 자라는 것-이 상존함으로써 숲의 환경구조의 변화

에 신속적으로 대응하며 그러한 피해를 줄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숲은 항상 신선하며 젊고 경이로운 곳이다. 우리는 이러한 숲속에서 끝없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사로잡힌다. 봄에는 자연의 다양한 색깔과 새들의 지



◇ 숲은 삶의 터전이자 수행과 깨달음의 장소이기도 하다

신선한 숲은 정신 체험의 공간

부처님도 나무아래서 탄생·정각·열반 이뤄

저림으로 모두가 매료되고, 여름과 가을에는 그 자연의 풍성함에, 겨울에는 대지의 토양을 지키는 그 강인함에 감동하고 있다.

이러한 숲도 인류에게 삶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정신적 체험의 원천적 공간이었다. 종교, 그림, 음악, 시, 문학등의 유일한 체험

의 장소였고 특히 시와 서화도 숲을 배경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숲속에서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서, 수행하시고, 깨달음을 얻고, 초전법륜하시고, 돌아가셨다. 부처님이 태어난 곳은 룸비니라는 사자수 숲이었으며, 아버지 숲도다나왕이 농경제를 거행하고 있을 때에 미래

의 부처인 아기 왕자 싯다르타가 부처자세로 깊은 선정에 드는 기적을 보인 곳도 장부타비에나무아래였다. 아기 왕자가 자랐을 때 낙달에 한번 찾아간 곳은 왕실 공원이었으며, 싯다르타 왕자가 생노병사의 네 가지 괴로움을 관할한 곳은 밍갈라 공원이었다. 29세에 유정출가하여 수

행한 곳은 우루벨라 숲이었다. 그리고 그는 네란자라 강변의 보리수나 무어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초전법륜을 행한 곳은 미가다비 숲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싯탈루다이의 초청으로 라자가라에서 카필라바루까지의 매혹적인 불의 숲을 여행하신 적이 있으며, 그가 건강을 회복하면서, 한철을 보낸곳도 발라레이바나 숲이었다.

그리고 부처님이 제자들과 지낸 곳인 사원인 벨라바나 비하라, 제타바나 비하라, 니르다라비 비하라 등은 모두 숲이나 공원에 있었다. 이 숲이나 공원안에는 대나무와 벵갈 보리수가 무성하게 함께하고 있었다. 나중에 부처님께서는 쿠시나카라의 깊은 숲속에서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의 모든 큰 사건들과 깨달음을 숲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숲은 참사람의 깊은 명상과 수행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거시적인 땅의 위대한 드라마 숲은 인간의 모든 관심과 유혹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참으로 인간이 세속을 떠날수 있고 만유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터전이기에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수행승들에 지시한 13조 가운데 숲의 나무밑에 사는 것이 수행승들의 중요한 덕목으로 되어있다.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재적사찰 등록 불자라면 특정사찰에 신도로 등록하고 법회를 비롯한 사찰의 각종 대소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찰에 신도로 등록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년에 1회 이하 또는 사찰에 가지 않기도 된다는 응답자가 12%에 이른다. 개신교의 무교회주의 같은 종교가 불교계에도 상당히 퍼져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많은 불자들은 재적사

찰 '부처'이니 '모든 곳이 법당'이니 하는 가르침을 도피처로 삼아서도 안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 은평구 조포동에 다니는 이원만행보살(38)은 "특히 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젊은 불자들이 재적사찰 갖기, 법회참석 및 보시 등의 기본적인 의무를 면하는 것 같다"며 "불자들의 인식이 반드시 재적사찰을 가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으로부터 올바른 수행지도 받을 때만이 자기의 문제

금주의 주제

재적사찰 갖기

의무다하는 '확실한 불자'

절 예절·교리등 스님에게 지도받아야

할 갖기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왜 재적사찰 갖기를 불자들이 의무화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20여년전부터 불교를 신앙하며 불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배씨(48)는 "스님들이 제대로 하면 왜 사찰에 안 가겠느냐"고 반문한다.

"스님들이 청정성을 회복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일삼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법문을 들려준다면 당연히 사찰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불교서적 등을 통해 얻은 '내가

를 볼 수 있는 자질을 갖추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이 절 저 절 떠돌아 다니거나 아예 사찰에 다니지 않는 불자들이 보편 개인의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불행이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재적사찰을 갖고 정기법회 참석, 보시 등 신도의 의무를 행하는 것과 함께 사찰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 그래야만 신도들이 소속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불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에서의 회한.

일체지하에서 일본에게는 교개를 속이지 않겠다며 선재로 세수를 했다. 민족과 불교의 등불 한용운스님이 물린 망우리에서의 회한.

경기 양주 봉선사에서 듣는 주지스님의 법어도 내나라 내민족의 평화와 무궁함이 함께 하라는 간절한 염원이요 보편이 땅의 주인이 땅의 불자로서 해야 할 일. 그것은 이 땅 모든 것을 소중히 지키고 이 땅 모든 이를 사랑하는 것임을 이날 다시 다짐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02) 237-4138

깨달음의 사회화성금

- ▲강화 보문사 3백2만7천원
- ▲화엄사 5백만원
- ▲강화 청련사 4십3만2천원
- ▲월정사 1백6십5만원
- ▲낙산사 2백만원
- ▲성북 팔정사 8만원

(2월 15~20일)
*성금모금 계좌번호
농협053-01-22778
국민은행023-01-0533-563
예금주: (불교중앙교연)

신행수첩

76차 깨달음의 장 정도 수련원 수련회

나를 찾아 떠나는 소중한 여행길이다. 경북 문경군 가을을 일찍이 백화산봉기에 위치한 정도수련원(원장 원각법사)은 3월 8~11일 4박5일간 제76차 '깨달음의 장(場)'을 마련한다. 월창한 백화산 숲속 수련원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자신의 본성(本性)을 조용히 성찰하게 될 이번 수련회는 불자들에게 참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수련을 마친 불자들은 '미워하는 사람과 관계도 좋아지

고 일상생활에 화를 내는 일도 없어져, 즐겁고 기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지도하는 법사들의 설명이다. 동참을 원하는 불자(만 18세 이상)들은 평상복차림에 세면도구를 지참하면 된다. (0581)71-603

전통민간 침술 치료법 성훈따주기 강좌 열려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 세간살이 부러울 것 없이 살지만 그 풍요로움 속에서 간혹 심신의 나약함을 느끼며 산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진실한 빛

이 되고자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는 전화전문 상담기관 자비의 전화에서는 일반인 및 불자들을 대상으로 '성훈 따주기'라는 의료 교양강좌를 마련, 현대인들의 지친 육체를 치료하고자 한다. 성훈따주기는 민간치료법으로 사용했던 우리나라 고유의 침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자비의 전화에서는 전통 민간요법에 관심있는 60명의 회원을 3월 2일까지 모집한다. (02)737-7378

백제문화 극치를 찾아서 서산마애불·감사등 답사

빛고을 한복판에서 신행과 포교에 역점을 두고 구준이 수행하는 불자들이 유서깊은 불교성지를 찾아 순례의 길을 나선다. 도암포교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관음사(주지 종연)는 3월 25일 부터 26일까지 계룡산을 시작으로 태안반도에 이르는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백제불교문화의 극치를 맛보게 될 이번 순례의 길은 먼저 계룡산 동학사와 감사, 만공선사와 법왕이 불신 풍기는 수덕사를 참배한다.

이번 순례의 길은 서산 마애석불, 부석사, 부여 정림사지와 낙화암 등지로 순례의 길이 계속 이어진다. 서산 마애불을 만나고자 하

는 불자들은 당일 7시 관주공원으로 모이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062)223-7666

'노년을 즐겁고 흥겹게' 마음젊은 노인학생 모집

우주는 한집과 같고 동생은 한가족이라서 우리동생 모두는 아득한 옛날부터 부모형제 아님이 없다고 한다.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의 조상이며 가족이라 생각한다면 우리사회는 한결 밝아지지 않을까.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종말과 노래, 춤을 배우며 흥겨운 노년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 노인대학에서는 3월9일까지 60세이상의 마음이 젊은 노인대학생을 모집한다. 기쁨의 현장인 길음복지관 노인대학에서 삶의 기쁨을 느껴보자. (02)985-0161~4

수화로 만나는 또다른 삼원심회 수학교실 개강

수화를 배우며 손끝으로 표현되는 색다른 언어의 세계를 통해 언어장애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지는 것도 우리자신의 삶의 영역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조계사 장애인포교원심회(회장 역신)는 수학교실을 개



◇ 서신 마애삼존불의 웃는모습 백제인의 미소로 전해온다.

강한다. 오는 6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수학교실은 만남이라는 말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인연의 자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02)720-4528

독립운동 유적지 순례 한용운 순병회 묘소

76년전 오늘, 우리 일 우리 땅을 되찾고자 분연히 독립만세를 외쳤던 이 땅의 주인들. 무덤가 무성한 잡초마저도 당

신들의 기개에 고개 숙이며 가지런히 모여 앉는 3월. 삼일선원(회장 손창대)이 바로 이날 3월 1일 우리 선원들의 피와 땀을 되새기며 민족독립운동의 유적지를 찾는 성지순례 및 역사문화기행을 떠난다.

그토록 독립을 애타게 갈망했던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 순병회선생이 자리한 수유리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

생활속의 불교 18

협찬: 태광 BOLT

평생두고 양식이 넉넉한 도리

어느 한 분야에서 우뚝 솟을만큼 성공한 사람들, 일가(一家)를 이룬 사람들은 대개 20년, 30년을 외공으로 파고든 사람들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대기업체 사장이 되기까지는 입사 이후 25년쯤 소요된다고 한다. 은행장이 되려면 입행 후 30년쯤 걸린다. 학문의 길로 들어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책과 씨름한 시간을 따지면 통산 20년이 조금 넘는다.

그러니 그 오랜 세월의 각고 얼마나 바쁜 일이었는가.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도 모자랄 만큼 운동 눈물과 밤의 기록으로 이어져 왔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만큼은 속성파로 알아지기를 원한다. 한두 권의 불서를 읽고 나서, 또는 스님들의 법문을 몇 차례 듣고 나서 "불법은 어려워서..."라고 말한다. 세상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데만 초·중고 12년의 세월을 보낸 사실은 가마득히 있고서는 불법이 어렵다는 말만 되뇌인다.

단지 한두 과목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며칠씩 밤을 새웠던 그때의 노력은 어디에 두고 불법만큼은 단숨에 알아지기를 바라 는 것일까.

불법공부의 공덕은 세간공부에 비견할 바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못 경전의 사구계(四句偈) 하나만 제것으로 만들어도 그 공덕이 보물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하셨다. 그런 큰 공부를 어찌 세간의 노력에 비유할 것이며 더욱이나 심문의 일, 백분의 일에도 못 미치는 노력만으로 제 것을 만들려 하겠는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은 그렇지만 불법공부만큼은 따로 시간을 쪼개지 않더라도 생활 가운데서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기에 얼마나 쉬운 일인가. '불법은 어려워서...'라고 말하기 전에 불법공부의 공덕을 먼저 생각해볼 일이다.

평생 동안, 아니 세세생생 양식이 풍족한 도리는 불법공부에 있다.



협찬.....

태광 BOLT

대표 조성훈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 4번지
전화: 634-8015, 678-4766 / 팩스: 634-7362